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소책자를 통해 여러분은 제가 예수님께 폭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 매료된 제 모습이 당장은 놀랍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곳곳의 기독교인은 너무나도 다양한 외모와 문화를 지니고 있지요. 교회들도 각기 다른 전통 속에 교회의 모양, 부르는 찬양까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기독교인에

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기독교인

바로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때로는 이것이 좀 과장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려 하는 사람 옆에 앉아보셨나요? 혹은 낯선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자며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린 적이 있나요? 그렇게나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은 으레 다소 단순하고 순진해 빠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참석하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 이런 물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그마한데 갈색이고, 여러분의 집 앞뜰에 살며 견과류를 좋아하는 것은 무

엇일까요?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손을 들고 이렇게 답합니다. “음, 다람쥐처럼 들리지만, 정답은... 예수님으로 하겠어요!”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아이들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대부분 그렇게 예수님께 빠져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중요한 점은 언제나 이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작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대화와 편지와 설교와 노래는 그분의 이름에 흠뻑 젖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분의 삶 속 이야기에 순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짧은 생애 동안 세상에 없던 진한 인상을 남기셨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

는 십중팔구 지난 2천 년간 예수님을 가리켜 온 표현 중 가장 절제된 묘사일 터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약 서른 살이 되시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조용한 생활을 영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불과 3년 남짓한 공생애는 사촌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류는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무척 놀랐습니다. 초기에 기록된 몇몇 구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
떠한 사람이기에 (마 8:27)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마 9:33)

우리가 다 놀라 (마 12:23)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마 19:25)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막 2:12)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막 5:42)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막 6:51)

제자들이 매우 놀라 (막 10:26)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막 10:32)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막 15:5)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눅 9:43)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눅 5:26)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맛보기 구절인데도 강렬한 인상을 풍기지요.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는 매우 주의를 기울일 만한 대목입니다. 몇몇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매번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는 큰 무리는 어떻고요?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까지도 그분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위에서 마지막으로 인용했던 짧은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눅 5:26)

문맥(누가복음 5장의 앞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에게는 더없이 일상적인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분에게 호기심을 품은 사람들, 그분에게서 흠을 찾으려 소란을 떠는 불구대천의 원수들로 붐비는 집안에서 온종일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그날 하루 동안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와 용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역시 예수님다운 하루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읽곤 했던 그런 하루이지요. 그러나 그날이 저물어 갈 즈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눅 5:26).” 저는 누가복음 5장의 이 짧은 구절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지요. 정말이지 흥미로운 하나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를테면 ‘모든 사람이 놀랐다’의 대목은 어떤 의미

일까요? 뛰어나거나 신기한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영문 표현에 따르면 Amazement seized all of them 이라고 합니다.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은 놀라움을 넘어서 경외감에 이른 것처럼 들리는군요.

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또 어떠한가요? 누가는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을 목적으로 거기에 온 원수들까지도 그렇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는 공화당 언론인이 매력적인 정치구호를 귀동냥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갔다가, 떠날 때쯤에는 거꾸로 민주당에 완전히 설득되어 탈당을 감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매우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보낸 그분의 원수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면이 그들을 움직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허를 찔렀기에 뻗뻗하고 방어적인 자세와 완고한 고집이 단번에 녹아내려 놀라움이 되었을까요?

게다가 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영광 돌림과 깊은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보인 것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대단히 겁먹게 된 것일까요? 뒤이어 그들이 둘러앉아 그날 본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저는 성별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을 아직 단 한 명도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비슷한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경험을 꼽는다면, 여러 흥미로운 만남 중에서도 바로 낙타사슴을 처음으로 직접 마주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타사슴에게 꼭 붙잡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콜로라도주 브레킨리지 마을 근처의 콘도에 있었습

니다. 실은 함께 진행 중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뒤에 누군가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었고, 함께 있던 동료들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내 우리의 시선이 커다란 미닫이 유리문으로 옮겨갔는데요. 거기에서, 등 뒤에서 우리를 뻘뻘 쳐다보고 있던 것은 바로 거대한 낙타사슴이었습니다.

여기서 낙타사슴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낙타사슴은 정말 큽니다.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거대함이지요. 가까이서 보면 (특히 미닫이 유리문을 통해 눈앞에서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본 낙타사슴은 어찌나 어마어마한 크기였는지 네 다리가 널찍한 데크 아래 지면을 디디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큼직한 얼굴과 뿔들이 미닫이 유리문 바로 앞에까지 닿을 만큼 충분히 키가 크고 몸집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고요한 현존이 말 그대로 방 전체를 압

도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에 짝 붙잡혔습니다. 성경 공부를 잠시 멈추면 좋겠다고 제안한 사람이 딱히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기억하기로는 제가 인도자였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쉬는 시간을 쓴 사람도 없었지요. 우리는 이 생명체의 크기와 현존에 오롯이 꺾뚫렸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놀라움에 짝 붙잡혔다”고 썼더랬지요. 그걸 경험했던 겁니다.

나아가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어떨는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낙타사슴의 놀랍고도 기이한 외양에 감명받았지만, 동시에 겁도 먹었습니다. 몇몇 친구는 그 동물의 작은 움직임에도 비명을 질렀고 저는 솔직히 바지를 적실 뻔했지요. 누가가 묘사했던 바를 작게나마 맛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후 그들이 왜 서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

았다”고 말했는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낙타사슴은 우리에게 흥미를 잃은 모양인지 작은 나무들을 쓰러트리며 숲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우리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뜨게 만든 낙타사슴의 이 구석 저 구석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저 활기찬 초등학생처럼 재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낙타사슴이 막 뛰어가면서 작은 나무들을 넘어트리는 거 봤어? 야, 다리가 얼마나 커다란지 봤지? 불룩한 배 아래로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방금 일어난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목격했어!

그렇게 저는 누가 묘사하는 이 반응을 작게나마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성하게 가지진 뿔로 위협감을 주는 낙타사슴 한 마리가 자아낸 경험이 었지요. 예수님이 걸보기엔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셨지요. 누가복음 5장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놀란 개인과 무리의 모습을 담은 구절은 허다합니다. 또 수

많은 사람이 앞에 나아와 즉시 그분 앞에서 무릎을 지면에 내려놓았던 사례가 수도룩합니다. 온갖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며 반응했던 사람들을 묘사하는 구절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낙타사슴이 방안으로 걸어 들어온 듯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이구동성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무시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큰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선택지 :

믿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

우리에게 열려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모든 복음서를 허황된 기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입은 지대한 영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나는 슈퍼맨의 상황을 열심히

해명해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겠지요. “그건 지어낸 거야. 만화일 뿐이야. 믿을 가치가 있는 자료가 아니야.” 저로서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지요.

복음서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역사적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요세푸스^{Josephus}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다른 역사가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거기엔 지리와 인물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와 파당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동시에 예수님이 늘 언급됩니다. 복음서들이 전하는 사건들은 상상 속의 도시나 어느 다른 행성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납니다. 연도와 일자와 이름은 모두 명쾌하고 감추어짐 없이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 역사가가 그 시대에 대해 말해주는 바와 모두 일치합니다. 만화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제2성전기 유대교와 당대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 중 하나인 톰 라이트 N.T.Wright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의 복음서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의 모습은 기원후 1세기의 20년대와 30년대 팔레스타인의 세계에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일관성을 지닙니다. 복음서의 묘사 가운데 떠오르는 예수는 역사상의 인물로서 철저하게 믿을 만합니다(톰 라이트,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 153).” 이렇듯 복음서들을 의심해야 할 역사적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의심할 만한 문헌적 근거도 희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복음서들이 파피루스에 처음 기록되었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추정할 훌륭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요. 본문 및 본문의 전승에 관한 연구에서 복음서들은 기록된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가장 강력한 내력pedigree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비교

하기 위해 기원전 400~500년 사이에 헤로도토스 Herodotus가 최초로 기록한 책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직접 방문한다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기원후 9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초기 사본이 여덟 개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과 원본 사이에 1300년에 달하는 시간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와 본문 비평학자는 오늘날 헤로도토스 사본들의 역사성과 진위가 문서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많은 고대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키디데스 Thucydides의 경우, 원본이 기록된 때로부터 1300년이 지난 시기로 작성 연대가 측정되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 여덟 개가 남아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카이사르 Caesar가 저술한 『갈리아 전쟁기』의 가장 오래된 사본 아홉 가지 혹은 열 가지를 확인할 수도 있을 텐데, 처음 기록된 때로부터 약 900년이 지나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약성경은 어떨까요?

이 복음서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는) 필사본들은 원본들이 기록된 때로부터 30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1300년이 아닌, 300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몇몇 도시를 따로따로 방문한다면 가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필사본은 시나이 사본Codex Sinaiticus이라 불리는데요. 현재 도서관 네 곳, 즉 대영도서관, 러시아국립도서관, 시나이반도의 성 카타리나 수도원, 라이프치히 대학 도서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www.codexsinaiticus.org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복음서 단편 조각은 파피루스 사본 52번(Papyrus 52)으로 불리는데, 그 복음서가 기록된 후 35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Michael Kruger, Canon Revisited, 210-211). 1300년이 아닌, 35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고대 필사본이 여전히 여덟 개

혹은 열 개나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대 필사본들의 사본들이 5,000개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어 사본만 세어봐도 그렇습니다. 독일 뮌스터의 신약성서 본문 연구소 *Institute for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가 사본의 수를 공식적으로 계수했는데 그리스어 사본만 5,773개였습니다(Kruger, 208). 이들은 두루마리 *papyrus*와 책 *codex*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스어 신약성경 필사본 다수가 조각나 있지만 보통 450쪽이 넘게 이어집니다(Daniel Wallace, *Revisiting the Corruption of the New Testament*, 28)! 본문 비평학자 호트 F. J. A. Hort의 소견에 따르면, “문헌이 기초하는 증거의 다양성과 충실성에 있어 신약성경 본문들은 고대의 산문들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이룬 데 없이 독보적”(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561)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 언어로 남아있는 20,000개(260만 쪽이 넘게 보존된 본문들인데요!)의 신약성경 필사본(Wallace, 28)이 모조리 유실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정확한 신약성경 사본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초기 그리스도교 작가들

이 자신들의 저작에서 복음서들과 다른 신약성경 문헌들을 아주 많이 인용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고대 문헌들에서 신약성경 인용문이 100만 개 이상 발견되었으며 그로부터 신약성경 전체를 실제로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Wallace, 28).

원본을 옮겨적은 초기 그리스도교 필사자들이 구성과 섬세함에 있어 극도로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Kruger, 186).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로마 세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주변 종교들과 구별됩니다. 그들은 필사본을 풍부히 만들어 내면서도 성경의 권위 있는 문체에 충실했습니다(Kruger, 181).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본문 차원에서 “당황스러울 정도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Wallace, 29). 결국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성경이 당시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고 의심할 문헌적 근거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복음서에 의문을 제기할 문학적 근거도 많지 않습니다.

복음서들은 역사, 즉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강령agenda을 가지고 본문을 써 내려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쓴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 저는 그들이 어떤 강령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기록한 바를 제가 더욱 신뢰하게 할 따름이지요! 왜냐고요? 바로 그 강령의 정체 때문입니다. 그들의 강령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쓰셨나요?”라고 물으며 신약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일관된 답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자들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요한복음, 요한1·2·3서, 요한계시록):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너희에게 전하노니...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요일 1:1-3). 제가 낙타사슴처럼 놀라운 걸 직접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은 무언가를 보았고, 그에 관해 여러분에게 생생한 이야기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마가복음의 배후에 있으며, 베드로전·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베후 1:16). 베드로는 기자들이 이야기를 꾸며낼 정도로 영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접 목격자였던 **누가**(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

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눅 1:1-4).

바울(신약성경 속 13권): “내가 받은 것을...너희에게 전하였노니”(고전 15:3);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 1:14);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해 받은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갔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강령, 그들의 저술 작업을 좌우한 강령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 또는 증인의 이야기를 정확히 받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모두가 정확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굳건한 강령이었기에 바울은 교회들이 특정한 유형의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딤후 1:9).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모두 당대의 회당학교에서 교육받았다는 사실도 숙고해야 합니다. 모든 소년은 일곱 살부터 열네 살까지 주 6일로 학교에서 히브리(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학습법은 바로 엄청난 양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구전된 가르침을 듣고 기억 속에 새겨두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다양한 암기법을 통해 반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대의 저명한 유대인 교사 힐렐^{헤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쓴 글을 100번 낭독한 사람은 그 글을 101번 낭독한 다른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

하시면서 이와 같은 암기법들(단순 반복, 비유, 어구 전환)을 많이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정성 들여 뜻있게 새겨주시기 위해 더 많은 기법을 활용하시기까지 하셨지요. 그들을 다른 이에게 보내시어 자신의 가르침을 반복한 뒤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게 하셨고, 그들이 겪은 중요한 순간과 체험을 묵상하도록 가르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한스 베이어, 『마가신학』, 40-4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주어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한번은 본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전파될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하셨습니다(막 14:9를 참고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사라지기에 앞서 하늘과 땅이 먼저 사라지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것처럼 굳건하고 단일한 강령을 지녔다는 사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강령은 예수님이 베푸신 가르침 및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

대로 지켜”나갈 지도자를 찾으면서까지 그 강령에 대해 끈덕진 태도를 보인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강령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한다면 복음서들을 의심해야 할 문학적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근거들로 인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내용(이 모든 놀라움과 무릎꿇음 등)이 정확한 이야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물어야 하겠지요. 이 모든 놀라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두 번째 선택지 : 예수님의 정체

어쩌면 예수님은 뭐랄까, 그분만의 특별함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모든 놀라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 깜짝 놀란 이들의 침묵을 설명하는 것

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숨김없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본다면 말이지요. 달리 말하면 낙타사슴보다 훨씬 놀라운 분에게 직접 물어보는 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살펴봅시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에 대한 질문에 그분은 어떻게 답하셨던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이다” 형식의 문장을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여기서 공통되는 주제를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다양한 비유와 상징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들에게 이 구절들은 에둘러 표현한
것의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이다^{am} ○○”라는
문장은 당시 원어의 올바른 문법을 갖추고 있었으
나 흔한 화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모
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
었을 때 그분께서 “나는 ○○이다”를 말씀하셨던
바로 그 방식과 일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이니
라^{am}”를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으

로 눈에 띄는 강조 구문을 사용하며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는 ○○이다”를 말씀하신 것이 얼마만큼의 충격으로 청중들에게 와닿았던 것일까요? “나는 ○○이다”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am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치려” 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요 8:58-59).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는 물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과감없이 밝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최종적으로 그분은 당대 사람들에 의해 사형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짓된 주장으로 여겼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고, 광풍이 이는 바

다를 잠재우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를 살려내시기까지 하셨던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물리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 심지어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까지 권능을 발휘하고 계신 듯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바울이 말하듯이, “그(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총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골 2:9).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참이었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다면 그동안의 불가사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놀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정으로 기록하고 참으로 남다르게 들린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가르침을 세세하게 쓰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기에 세기를 거쳐 그분께 완벽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에 대한 얘기를 멈출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교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한 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요. 그분에 대한 이러한 선포는 시대를 거듭하여 전해지고, 세대마다 새롭게 알려집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 받았던 저는 열여섯 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저도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썼던 “아름다운 것”을 온전히 감싸 쥐고 지키게 된 것은, 캐나다의 멋진 광야에 자리한 캠프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참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물음에 답했을 때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마치 45도 각도로 가장 멀리 날아갈 준비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관계”라는 살짝 부족한 단어(이 단어가 대체로 너무 진부하게 쓰이는 표현이긴 합니다)로만 묘사될 수 있을 예수님과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대한 왕국을 세웠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제국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던 인물로서 충격적일 정도로 겸손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시공간의 제약을 거슬러 제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합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그분의 놀라운 초자연적 사랑을 체험하지요. (중략) 위대한 파괴자인 시간도 이 성스러운 불길을 전혀 꺼트리지 못합니다. 시간은 그 힘을 고갈시키지도, 그 범위에 제한을 두지 못합니다. 제 마음을 벼락처럼 관통하는 게 있다면 제가 이에 대해 줄곧 생각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설득력 있게 입증합니다(Henry Parry Liddon, Liddon's Bampton Lectures 1866 [London: Rivingtons, 1869], 148에서 발췌).” 이것이 나폴레옹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결국 우리 각자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물음에 목회자와 황제, 성인과 죄인, 농부와 군인과 빈자와 어머니와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답합니다. 그들이 이루고 있는 기다란 대열에 저도 서 있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소책자에서는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라는 물음을 묻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라는 이 물음이 물을 가치가 있고, 곱씹을 가치가 있으며, 충분히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권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돈 에버츠는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가 된 모험에 관해 12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작가입니다. 대학에서 활동하는 사역자이자 안수받은 목사이며 친근한 이웃인 돈은 25년 이상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루터란아워Lutheran Hour는 '루터교회 또는 루터교 교인들이 마련한 미디어 시간 또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지난 세기 초 미국 루터교 미주리 의회 평신도들이 설립한 루터란아워는, 세계 6개 대륙의 60여개 국가들에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한국루터란아워는 미국 루터란아워와 기독교한국루터회의 후원과 동역으로 후암동에서 범교단적 미디어선교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루터란아워 뉴스레터 구독 신청할시 혜택!

- 매 절기마다 판매부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루터란아워 <목상집> 출간 소식 받기
- 후암동 중앙루터교회 본당에서 한달에 한 번씩 무료로 열리고 있는 '정오음악회 클래식 콘서트' 소식 받기
-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강좌 소식 받기
- 다양한 책모임과 이벤트 및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소식 받기
-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절기에 따른 성경구절 읽고 묵상하기

루터란아워 뉴스레터 구독 & 후원하기

<https://linktr.ee/lutheranhour>

루터란아워 홈페이지에서 소책자를 pdf로 다운받으세요!

korealutheranhour.org/pdf

후원계좌

국민은행 098937-04-006221 [예금주: 한국루터란아워]



루터란이 말하는 예수님 II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루터란이 말하는 예수님 III
예수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루터란이 말하는 예수님〉 시리즈는
기독교한국루터회, 광주제자들교회, 대조동교회,
왕십리교회, 중앙교회, 팔복교회의 인채비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독교한국루터회 info.lck.or.kr
광주제자들교회 gjjd.lck.or.kr
대조동교회 cafe.daum.net/lckdj
왕십리교회 wslch.lck.or.kr
중앙교회 yes-luther.com
팔복교회 palbokluther.wordpress.com



루터란아워는 미디어를 활용해
교파의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를 모든 이에게 전하고
모든 이가 교회로 서게끔 일하는 평신도 중심의 선교단체입니다.

문의 : info@korealutheranhour.org
Copyright © 2023 by Lutheran Hour Ministries